

## 너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

### 롬 6:12~14

지금까지 공부한 바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말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이요 동시에 부활하여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새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속사람, 거듭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의 생활의 특징은 무엇인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의 삶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는 한마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란 죄에서 떠나 성결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결이란 거룩과 순결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한마디로 순결한 삶이며 거룩한 삶입니다. 성결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평생 추구해야 하는 목표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우리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죄에서부터 자유한 자요, 죄를 이긴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세력을 꺾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사단의 모든 세력을 꺾은 자들이요 사단의 모든 유혹에서 이긴 자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과 유혹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요즈음 우리 주변에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소수의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때 세상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초대 교회는 로마를 변화시켰습니다. 진정한 교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변화의 능력은 순결이요, 거룩이요, 성결입니다.

구원의 사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이 실천적으로 내게 임해야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대하고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룩이 중요합니다. 순결이 중요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순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다 위선자요 불필요한 것들을 행하는 사람에 불과 합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거룩과 순결, 성결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 **거룩과 순결의 삶**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사단으로부터의 승리, 성결의 삶이 어떻게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것에 대해 3가지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12절에서 그 첫째, 둘째 방법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죄가 내 몸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아직도 내 몸에 있는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명령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죄를 십자가에 못박아 이론상으로는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재판에서의 판결과 같습니다. 재판장이 여러 과정을 거쳐 이야기 합니다. “당신은 무죄! 석방이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십자가는 선언입니다. 십자가를 믿고 바라보는 모든 사람은 무죄입니다. “죄가 너에게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고 이미 판결문이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의 선언문을 가지고 나가서 선언을 해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서 검찰이 법을 집행합니다. “나를 왜 잡아갑니까?”라고 말하면 검찰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속영장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로 받은 체포문을 죄에게 가져가서 “이제 너를 체포한다. 너는 이제 모든 권한을 중지해야 한다. 죄의 모든 쓰는 것 죽이는 것, 파괴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라는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구속 영장도 없이 가서 체포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누구인데 나를 체포합니까?”하면서 비웃을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죄에 대한 판결문을 갖지 못한 사람이 그의 안에 있는 죄에게 “너는 이제 너희 모든 활동을 멈출지어다”라고 하면 죄가 “너는 뭐냐?”고 할 것입니다. 구속영장이 없다고 반박합니다. 수모를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에 대해 수갑을 채울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를 묶노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우리를 속이고 기만하려 합니다. 어제도 죄를 지었는데 오늘은 왜 그러느냐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오래 믿지 않았느냐. 어제오늘 믿은 것 아니지 않느냐. 이제까지 나랑 잘 살다가 오늘 갑자기 왜 그러느냐?”고 합니다. 죄가 반항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체포하라는 것입니다. 어제 체포 못했다고 할지라도 오늘 명령을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죄는 만만히 몰려서지 않습니다. 쉽게 몰려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나를 너무나 지배하고 살아왔고 나를 이용하고 통치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자꾸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가져온 체포 영장은 가짜가 아니냐? 네 믿음은 가짜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죄가 그렇게 말하면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라고 물으면 “교회 다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구원을 받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다시 우리를 파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강력한 명령을 내포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까지 그 죄와 동거했을 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당당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죄의 속임수에 빠지지 마십시오.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단순히 떡과 포도주로 기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를 끊어버리십시오. 죄의 능력을 인정하지 마십시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묶으십시오. 십자가의 문서를 제시하십시오. 사단은 결박당할 수밖에 없음을 선포하십시오. 일단 죄가 내 몸에서 묶임을 받으면 활동이 불가능해 집니다. 12절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죄를 묶지 못하면 육신의 욕망이 풀어집니다. 욕망이 다시 삽니다. 육신의 욕망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육신의 욕망이 나타날 때 성경은 첫째로 죄를 묶고 둘째로 순종하지 말라고 합니다.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거절할 수 없는 육신적, 물질적 욕망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시기, 질투, 미움과 같은 본능들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릴 때 원하는 대로 가지 말고 거절하여 순종치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을 보십시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욕망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욕망 때문에 괴로워합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것이 잘못된 줄을 알면서도 자꾸 그것을 하려는 욕망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원치 않는데 그 더러운 욕망이 내 안에서 자꾸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욕망과 싸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죄를 먼저 묶지 않으면 그 나오는 욕망과 싸운다는 것은 피투성이가 되는 그런 투쟁입니다. 내 몸에서 나오는 죄의 욕망, 육신의 욕망, 불법과 같은 것들은 아주 구체적인 것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5가지 육신의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 나오는 15개의 죄가 여러분과 상관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욕망들이 사람들에게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한 죄의 욕망에 사로잡혀 그렇게 계속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죄의 능력을 체포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능력을 막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영향력을 받아서 우리 몸의 모든 욕망들이 구체적인 범죄 사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들이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들은 거룩해질 수도 없고 능력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저 끊임없이 뒤죽박죽될 뿐입니다. 거기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그런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찬송도 힘이 없습니다. 기도도 힘이 없습니다. 교회 나오지만 무슨 좋은 일을 하려는 사람들을 만나면 반대합니다. 자신에게 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뒤죽박죽되어 겨우 간신히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살기는 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화와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죄를 이기시고 사단의 세력을 꺾으셨고 모든 악을 정복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문서를 가지고, 십자가의 선언을 가지고 여러분 몸의 죄를 끊고 묶으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묶이면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욕망이 점점 없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힘이 없습니다. 욕망을 따라 하기는 하지만 재미가 없어집니다. 점점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이며 순결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 의의 병기로 드림

세 번째는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12절에서 말하는 방법이 묶고, 쫓아내는 다소 소극적인 방법이였다면 13절에서는 적극적인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또한 저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세 번째 방법은 “네 몸을 마귀가 쓰는 도구로 바치지 말고 거꾸로 적극적으로 네 인생을,

네 삶을 하나님이 쓰시는 병기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배 시간에 죄를 짓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습니까? 이 예배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면 마귀가 가져갈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교회 온다면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음악회, 축제 등 세상의 모임들을 따라다니다 보면 즐기는 하지만 죄를 지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만나지 않아도 될 사람도 만나게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도 하게 되고, 자꾸 유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이 점령하게 만드십시오. 우리의 육신을 마귀가 쓰기 전에 하나님이 쓰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건강을, 육신을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이 나를 점령하면 마귀는 나를 점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중간 지대에 놔두면 마귀가 나를 점령할 확률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죄를 묶지 않은 상태, 죄가 내게 왕노릇하는 상태, 죄가 내 안에서 욕망이 되어 튀어나오게 되어 죄를 짓게 된 상태를 가리켜 오늘 성경은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미 마귀가 여러분을 건드리고 여러분을 데리고 장난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원하는 대로 끌고 다니면서 여러분의 왕노릇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쾌락이라는 대가를 줍니다. 물질, 세상의 성공이라는 대가를 줍니다.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대통령을 시켜 주마. 내가 네게 권력을 주마. 그러니 나를 왕으로 삼아라.” 그러니까 선거철에는 예수 믿는 국회의원도 절에 가서 비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들에게 국회의원 시켜 줄 테니 그렇게 하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욕망을 따라 국회의원 자리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관까지도 바꿉니다. 그러면서 잠깐 동안만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파우스트가 마귀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잠시 동안은 세상의 쾌락을 느낄는지 모르겠습니다. 잠깐의 명예를 가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시간, 물질, 몸을 마귀에게 팔아버린 것입니다.

“내가 가난하게 살지라도 나는 마귀에게 영혼을 팔지 않겠다. 나의 인생, 삶 전체를 마귀에게 내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13절의 “너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시간을 쓰시고 하나님이 나의 돈과 능력과 지혜와 인생의 모든 것을 쓰실 수만 있다면 나는 내 인생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시간을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내 시간을 쓰겠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손해를 보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의의 병기로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시간과 능력과 마음을 팔아 버린 사람, 사단이 좋아하는 일에 자신을 주는 그 사람들의 결론은 뻔합니다. 불 보듯 뻔합니다. 죽음과 고통과 파멸과 저주가 그의 인생을 채울 뿐입니다. 지금은 관찮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어 갈 것입니다. 마귀의 이러한 일을 진두지휘하는 사령탑이 무엇인줄 아십니까?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마귀는 먼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자동적으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죄를 조정하고 죄를 생산합니다. 그는 원래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함으로 땅에 쫓겨난 것입니다. 모든 악이 그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악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모든 악을 지배합니다. 그들은 수많은 즐거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우리들은 악령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귀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령탑은 우리의 사고입니다.

더러운 악령들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세상을 더럽힙니다. 귀신은 더러운 영입니다. 그것들이 가는 곳마다 온통 더러워집니다. 환경이 더러워지고 몸이 더러워지고 모두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귀신은 속이는 자요, 우리를 죽이고 우리 몸에 병을 유발케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열등감을 갖게 하고 부정적이게 만듭니다. 폐쇄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마귀가 쓰기에 좋은 그릇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악의 세력들은 우리 몸을 끔뎌 묶고 우리로 하여금 종노릇하게 합니다. 마귀가 묶어서 마귀가 끄는 대로 우리를 가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육의 욕망과 더러운 귀신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이렇게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지체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지체’라는 것은 구체적인 어떤 대상을 의미합니다. 머리, 눈, 귀, 입 같은 것들이 지체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모이면 몸이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 짓는 죄가 있고 손이 짓는 죄가 있고 입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너는 눈을 마귀에게 주었는가? 왜 입을 마귀에게 주었는가?” 이 지체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렇습니다. 월요일에는 눈이 하나 빠지고 화요일에는 손이 하나 잘리고 목요일에는 등이 굽히고 금요일에는 뼈가 부러지고 피투성이가 되어도 죄에게 승복하지 않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주일에 와서는 교회 마당을 밟으며 “하나님, 내가 승리했습니다.”라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중에 이렇게 해서 눈이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손이 잘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당당하고 점잖게 주일예배에 참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지체를 마귀가 쓰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십시오. 이 손을 들어 가난한 자를 돕고 이 입을 가지고 병든 자들을 위로하고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건강, 사회적인 특혜들을 가지고 억울하고 가난한 자를 위해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사회적인 지위로 인하여 남들이 갖지 못한 어떤 권위들, 특혜들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내 육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남을 위해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십시오. 그것이 우리들을 의의 병기로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보수가 없더라도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드려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몸을 마귀가 점령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은 머리를 분열시키는 사단의 전략에 사용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 좋은 머리를 이간질하는데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머리가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십시오.

14절을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죄를 체포하고 몸의 욕망을 거절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지체를 하나님의 쓰시는 의의 병기로 드리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법이 아닙니다. 법이 아니라는 말은 강제로 한 것이나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할 때 자신이 좋아서 그것을 하면 더 좋습니다만 어떤 때에는 시켜서 그것을 시켜서 할 때가 많습니다. 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귀찮고 싫어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의의 병기로 드리는 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싫어도 그 일을 해야 할 때는 얼굴이 구겨집니다. 내가 안하면 안되니까, 월급을 못 받게 되니까 그것을 한다면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좋아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그것을 합니다. 좋아서 그렇습니다. 죄 안 짓는 일이 이렇게 좋은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이 나고 기뻐서 하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하고 성경공부하고 봉사하는 일이 찬양과 얼굴에 기쁨이 되는 일이 되는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병기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마귀가 기뻐하는 대로 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는 일을 억지로 하지 말게 해 주시옵시고  
기쁨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 「온누리신문」 제공 - <http://www.onnurinews.com/>